

[18~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제1회 봄놀이

오작교에선 선랑(仙郎)이 봄바람에 취하고  
버드나무 언덕에선佳人(佳人)이 그네를 뛰네

‘광한루기’는 작품 전체의 제목이다. 광한루가 없었더라면 [A] 이도린이 놀러 가지 않았을 것이요, 이도린이 놀러 가지 않았더라면 춘향이 이도린을 만날 수 없었을 것이요, 춘향이 이도린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8회로 구성된 한 편의 작품이 무엇을 바탕으로 탄생할 수 있었겠는가. 광한루 하나가 공중에 솟구쳐 있었기에 이도린이 놀러 갈 수밖에 없었고, 춘향이 이도린을 만날 수밖에 없었으며, 8회로 구성된 한 편의 작품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다.

(중략)

그네 뛰는 모습을 이도린이 보고 자기도 모르게 눈앞이 어질어질하여 김한에게 말했다.

“너는 저런 것을 본 적이 있느냐? 저것이 금이나, 옥이나? 아니면 귀신이나? 그것도 아니면 선녀냐? 너는 저것을 아느냐?” 김한이 대답했다.

“금도 아니고 옥도 아닙니다. 낙수(洛水)에 빠져 죽은 이의 넋도 사라지고, 양대(陽臺)에서 구름과 비를 만들었던 여인의 일도 이제 아득하기만 한데, 어떻게 귀신 같고 선녀 같은 아가씨가 요즘 세상에 나타났겠습니까?”

“그렇다면 누구란 말이나?”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이 누구냐?”

“도련님께서는 교방 행수 기생 월매를 기억하시는지요?”(이게 무슨 말이야?)

“저렇게 젊고 아리따운 여인을 어떻게 반쯤은 쭈글쭈글해진 노파에다 비교할 수 있느냐?”

“저 사람은 월매의 딸 춘향입니다.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며 글도 잘하고 바느질도 잘하며 그 용모와 자태는 정말 절색입니다. 남원의 절색일 뿐 아니라 도내의 절색이요, 도내의 절색일 뿐 아니라 국내의 절색이라 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이도린이 매우 기뻐하며 말했다.

“풍류를 즐길 만한 인연이 정말이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구나. 네가 가서 불러 오거라.”

“도련님께서는 저 아이를 불러다가 무엇을 하시려고요?”

“고운 얼굴 한번 보려고 그런다.” ㉠(어찌 그렇지 않을 수 있겠는가?)

“도련님께서 저 아이를 보시고 무엇 하시려고요?”(눈치 빠른 김한)

“내가 이 일을 하든 저 일을 하든 네가 알아서 뭇 하느냐?”

“부른다 해도 저 아이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오고 안 오고는 저 아이한테 달렸지 너한테 달리지 않았으니, 너는 그 새 주둥이 같은 입을 그만 닥치거라.”

이에 김한이 머리를 떨구고 갔다.

원래 춘향은 풍경을 즐기려는 옆집 여자 아이를 따라 나온 것이었다. 채색 줄로 만든 그네를 탔는데, 봄바람에 옷자락이 흐트러져 버드나무 가지를 꼭 잡은 채 그네를 멈추고 옷매무새를 바로잡으려 했다. 그때 갑자기 광한루 위에서 사람의 말소리가 들리자(이게 누구지?) 춘향은 몸을 돌려 **꽃그늘** 속으로 들어가

숨고서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도린이 꽃무늬가 있는 작은 종이를 손에 쥐고 홀로 광한루 동쪽 난간에 기대어 있었는데, 그 모습이 티 없이 맑아 춘향은 은연중에 찬탄하는 말을 내뱉었다. 갑자기 김한이 바쁜 걸음으로 와서 불렀다.

“춘향 낭자 어디 있소?”

춘향이 다시 몸을 돌려 숨었기 때문에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김한이 이리저리 찾아보다가 꽃그늘에까지 와서 춘향을 발견했다.

(중략)

김한이 웃으며 말했다.

“춘향은 노여워 말고 내 말 한번 들어 보오. 어제 남문 밖 큰 길에서 까치 같은 옷차림의 사령들이 쌍쌍이 앞에서 인도하고, 호랑이 무늬의 활집을 진 군관들이 대열을 이루며 뒤에서 호위한 채, 한 귀인이 구름 같은 가마에 앉아 아전들과 기생들 사이를 누비고 다녔는데, 낭자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오?”

“네가 또 쓸데없는 말을 하는구나. 내가 어찌 본관 사또를 몰라보겠느냐?”

“내가 말한 귀인은 바로 사또 자제 도련님이오.”(기특한 김한)

“사또 자제 도련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나?”

“낭자, 우리 도련님을 한번 만나러 갑시다.”

“도련님이 어떻게 춘향인지 추향인지 알겠느냐? 내가 춘향 입네, 기생입네 하면서 농지거리해서 일을 벌였겠지. 나는 죽어도 못 간다, 죽어도 못 가.”

“춘향 낭자, 그대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면서 이다지도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오? 속담에도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라고 했듯이 도련님께서 춘향이 발한 것이 우연히 오늘이며, 낭자가 그대 뛰며 논 것도 마침 이때이니, 이는 참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된 것이오. 도련님께서 낭자를 보시고는 ‘귀신이나? 선녀냐?’라고 물으시기에, ‘귀신도 아니고 선녀도 아닙니다.’라고 말했고, ‘그럼 누구냐?’라고 하시기에, ‘행수 기생의 딸입니다.’라고 말했소. 젊은 사내가 어찌 한 번쯤 그 아름다움을 살피려 하지 않겠소? 춘향 낭자는 잘 헤아려서 처신하시오. 갈 수 있으면 가는 것이고, 못 가겠다면 못 가는 것이지만, 화와 복이 눈앞에 놓여 있으니 낭자는 잘 생각하시오.”

춘향이 한참 동안 잠자코 있다가 말했다.

“네 말이 일리가 있다.”

- 수산, 『광한루기』 -

18.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도린은 춘향이 자신에게 호감을 느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 ② 춘향은 그네를 타기 위해 나들이에 나섰지만 기대했던 바를 달성하지 못했다.
- ③ 이도린은 춘향을 부르면 이도린 자신을 만나러 올 것이라는 김한의 말을 믿었다.
- ④ 이도린은 월매가 춘향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를 모르는 척했다.
- ⑤ 옆집 여자 아이는 이도린을 만나기 위해 춘향과 함께 왔지만 풍경을 즐기는 것에 만족했다.

19. 꽃그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춘향이 그네를 타기 위해 기다리는 장소
- ② 춘향이 김한을 기다리며 머물고 있는 장소
- ③ 춘향이 몸을 감추고 이도린을 바라보는 장소
- ④ 김한이 이도린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장소
- ⑤ 이도린이 춘향과 만나기 위해 미리 약속한 장소

20. 윗글에서 ‘김한’의 역할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도린에게 눈앞에 보이는 것이 금과 옥이 아니라고 알려 주어, 이도린의 무지를 일깨우는 비판자 역할을 한다.
- ② 이도린에게 춘향이 선녀 같은 아가씨라고 말하여, 이도린이 춘향의 고귀한 신분을 알게 하는 조력자 역할을 한다.
- ③ 이도린에게 풍류를 즐길 만한 상대가 춘향이라고 이야기하여, 이도린이 춘향을 부르게 하는 중개자 역할을 한다.
- ④ 춘향에게 춘향 자신이 지혜로운 사람임을 일깨워 주어, 춘향이 이도린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자 역할을 한다.
- ⑤ 춘향에게 이도린과의 만남은 거둬진 우연으로 이루어진 인연임을 알려 주어, 두 사람을 만나게 하는 매개자 역할을 한다.

21. <보기>를 참고하여 [A],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광한루기』는 ‘수산(水山)’이라는 호를 쓴 사람이 『춘향전』을 바탕으로 지은 한문 소설로, 총 8회로 이루어져 있다. 각 회의 앞부분에는 내용을 소개하는 시구와 해당 회에 대한 견해가 제시되어 있고, 본문 속에는 인물이나 사건 등에 대한 짤막한 평이나 감상이 작은 글씨로 제시되어 있다. 『광한루기』의 독자는 이와 같은 다양한 비평적 견해를 이야기와 함께 읽으면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 ① [A]에서는 시구를 활용하여, ‘봄바람’과 ‘버드나무 언덕’이 어우러진 봄날의 분위기를 보여 주면서 해당 회의 배경을 드러내고 있군.
- ② [A]를 통해 해당 회의 주요 공간인 ‘광한루’를 소개하여, 그 공간의 역할을 드러내고 있군.
- ③ [A]에서는 두 인물이 만나게 되는 계기를 서술하여, 서사 전개에 개연성을 보여 주고 있군.
- ④ ㉠은 인물의 말에 대한 평을 통하여, 독자에게 이도린의 반응이 당연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보여 주고 있군.
- ⑤ [A]와 ㉠을 통해 독자에게 작품의 감상법을 다양하게 설명하여, 『광한루기』를 8회로 구성한 이유를 부각하고 있군.

[22~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아득한 옛날에 나는 떠났다

㉠ 부여를 숙신을 발해를 여진을 요를 금을

홍안령을 음산을 아무우르를 송가리를

범과 사슴과 너구리를 배반하고

송어와 메기와 개구리를 속이고 나는 떠났다

나는 그때

㉡ 자작나무와 이깔나무의 슬퍼하던 것을 기억한다

갈대와 장풍의 불드던 말도 잊지 않았다

㉢ 오로촌이 멧돌을 잡아 나를 잔치해 보내던 것도

썰론이 십릿길을 따라 나와 울던 것도 잊지 않았다

나는 그때

㉣ 아무 이기지 못할 슬픔도 시름도 없이

다만 게을리 먼 앞대로 떠나 나왔다

그리하여 따사한 햇귀에서 하이얀 옷을 입고 매끄러운 밥을  
먹고 단 샘을 마시고 낮잠을 잤다

밤에는 먼 개소리에 놀라나고

아침에는 지나가는 사람마다에게 절을 하면서도

나는 나의 부끄러움을 알지 못했다

그동안 돌비는 깨어지고 많은 은금보화는 땅에 묻히고 가마  
귀도 긴 족보를 이루었는데

이리하여 또 한 아득한 새 옛날이 비롯하는 때

㉤ 이제는 참으로 이기지 못할 슬픔과 시름에 쫓겨

나는 나의 옛 하늘로 땅으로 — 나의 **태반**으로 돌아왔으나

이미 해는 늙고 달은 파리하고 바람은 미치고 보래구름만  
혼자 났 없이 떠도는데

㉥ 아, 나의 조상은 형제는 일가친척은 정다운 이웃은 그리운  
것은 사랑하는 것은 우러르는 것은 나의 자량은 나의 힘은 없다  
바람과 물과 세월과 같이 지나가고 없다

— 백석, 「북방에서-정현웅에게」—

(나)

겨울 아침 언 길을 걸어

물가에 이르렀다

나와 물고기 사이

창이 하나 생겼다

물고기네 지붕을 튼 ㉠ 살얼음의 창

투명한 창 아래

물고기네 방이 한눈에 뵈었다

나의 생가 같았다

창으로 나를 보고

생가의 식구들이

나를 못 알아보고

사방 쪽방으로 흩어졌다

젖을 갓 땀 어린것들은

찬 마루서 그냥저냥 그네끼리 놓고

어미들은

물속 쌓인 돌과 돌 그 틈새로

그걸 깊은 데라고

그걸 가장 깊은 속이라고 때로 들어가

나를 못 알아보고

무슨 급한 궁리를 하느라

그 비좁은 구석방에 뻐곡히 서서

마음아, 너도 아직 이 **생가**에 살고 있는가

시린 물속 시린 물고기의 눈을 달고

— 문태준, 「살얼음 아래 같은 데 2 — 생가(生家)」—

(다)

이문원 동쪽 늪은 나무가 있는데 적어도 백여 년은 된 것 같다. 그 몸통은 울퉁불퉁 웅이가 쪼고 가지는 구불구불 뻗어서 멀찍이서 보면 가파른 산등성이나 성난 파도 같았고 다가가서 보면 둥그스름한 큰 집채 같았다. ㉠ 기둥으로 나무를 받쳐 놓았는데 그 기둥이 모두 열두 개이다. 나무 옆에 누각이 있는데 바로 내가 이불을 들고 가서 숙직하는 장소이다. 좌우에 책을 쌓아 놓고 교정하느라 바쁘게 시간을 보내다가 이따금 나무 곁을 산책하였다. 썩썩 불어오는 긴 바람 소리를 들으며 **널찍이 드리운 서늘한 그늘** 아래를 거닐면 몸은 대궐 안 관청에 있어도 숲속의 소나무와 바위 사이로 **홀썩 벗어나 있는** 기분이 든다.

하루는 내가 동료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나무는 정말 특이하군! 대체로 **풀과 나무**가 살아가려면 제각기 **몸을 보전하는 계획**이 있기 마련일세. 풀명자나 배, 굴이나 유자, 사과나 석류 같은 나무들은 열매가 커도 가지가 그 무게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네. 하지만 질경이나 냉이, 강아지풀 같은 풀들은 살아가려면 땅바닥에 붙어 있어야 하네. 그래야 말발굽이 짓밟거나 수레가 밟고 지나가도 더 손상을 입지 않지. 지금 저 늪은 나무는 줄기의 길이가 몸통보다 갑절로 뻗어 사방에 드리워도 잘라 낼 줄 모르네. 만약 받쳐 주는 기둥이 없으면 부러지고야 말 걸세. **조물주가** 이 나무에게는 사람의 손을 빌려 온전하도록 한 것인가?”

아! 내가 **암소**의 뿔을 보니 **뿔이 구부러져 안쪽으로 향**했는데 심한 것은 사람이 반드시 **툼으로 잘라** 내야만 광대뼈를 뚫는 걱정을 모면하였다. 이제야 알겠구나. 늪은 나무를 가축에 견주자면 뿔을 잘라 내야 온전해질 수 있는 암소와 같다. **가축**이 인간에게 의지하여 살아가듯이 늪은 나무도 인간에게 의지하여 살아간다.

나는 **저 깊은 산중 인적 끊긴 골짜기**에 이렇듯이 번성하게 자란 늪은 나무를 아직까지 보지 못했다.

— 유본예, 「이문원노종기(摛文院老樞記)」—

22.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비판적 태도로 현실의 부정적 측면을 부각하고 있다.
- ② 역사적 상황을 묘사하여 비극적 현실을 부각하고 있다.
- ③ 빗대어 표현하는 방식으로 ‘나’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영탄적 어조로 대상에 대한 ‘나’의 경외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향토적 소재를 활용하여 ‘나’의 과거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23. **태반**과 **생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화자는 태반에서 상실감을 느끼고 있고, (나)의 화자는 생가에서 서글픔을 느끼고 있다.
- ② (가)의 화자는 태반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고, (나)의 화자는 생가에서 느꼈던 수치심을 떠올리고 있다.
- ③ (가)에서 태반은 이별을 수용하는 공간이고, (나)에서 생가는 만남을 기약하는 공간이다.
- ④ (가)에서 태반은 화자의 희망이 드러나는 공간이고, (나)에서 생가는 화자의 절망이 드러나는 공간이다.
- ⑤ (가)에서 태반은 생명의 섭리를 지향하는 공간이고, (나)에서 생가는 생명의 섭리를 거부하는 공간이다.

24. ㉠~㉥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서는 여러 민족, 나라, 지명을 열거하여, 화자가 떠나온 공간을 북방으로 포괄되는 동질적 공간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② ㉡에서는 의인화된 자연물을 제시하여, 화자가 북방을 떠나면서 느낀 슬픔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에서는 이별하던 장면을 유사한 통사 구조로 제시하여, 화자가 북방에서의 기억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의 시구가 ㉥에서 반복, 변주되는 것을 통해, 상반된 상황이 시간의 추이에 따라 일치되는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에서 ‘없다’와 그 앞에 열거된 시어들을 통해, 화자가 가깝게 느끼고 가치를 부여했던 것들이 부재함을 표현하고 있다.

25.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이 시에서 성년이 된 화자는 얼음 아래의 물고기를 보면서 유년 시절 자신의 생가를 회상한다. 화자는 물고기의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물고기네’의 여기저기를 본다. 그리고 ‘물고기네’의 모습에 화자의 생가에 대한 기억이 겹쳐진다. 화자는 자신을 물고기에 투영하면서, 성년이 된 지금도 여전히 생가에서의 ‘시린’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 ① ‘투명한 창’을 통해 본 물고기의 생활 공간을 ‘물고기네 방’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니, 화자는 얼음 아래 물고기의 공간과 자신의 생가를 겹쳐 보고 있군.
- ② ‘창으로 나를 보’고 ‘사방 쪽방으로 흩어’지는 물고기들의 움직임을, 화자는 ‘생가의 식구들’이 자신을 못 알아본 것으로 표현하였군.
- ③ ‘젖을 갓 땀 어린것들이 ‘그네끼리 놀고’라고 표현한 것을 보니, 화자는 물고기들이 노는 모습을 통해 유년 시절 생가에서 지내던 아이들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군.
- ④ 화자는 ‘비좁은 구석방에’서 ‘급한 궁리를 하’는 물고기의 모습에 유년 시절 생가에서 외따로 지내야 했던 자신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군.
- ⑤ 화자는 ‘마음아, 너도 아직’ 생가에서 ‘살고 있는가’라고 하여, 성년인 자신의 마음속에 유년의 기억이 자리 잡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군.

26.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의 불안을 심화하는, ㉡는 글쓴이의 의지를 북돋아 주는 역할을 한다.
- ② ㉠은 화자의 이상향을 형상화하는, ㉡는 글쓴이의 태도를 전환하는 역할을 한다.
- ③ ㉠은 ㉡와 달리, 화자에게 책임감을 떠올리게 하는 계기가 된다.
- ④ ㉡는 ㉠과 달리, 글쓴이가 처한 상황을 극복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 ⑤ ㉠과 ㉡는 모두 대상을 새롭게 주목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27. <보기>의 [A]에 들어갈 학생의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선생님**: 여러분, 『이문원노종기』는 이문원의 늙은 나무가 인간의 도움을 받아 오랫동안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점에 착안한 글입니다. 서로 다른 생명체가 각각 이익을 주거나 받는 현상을 중심으로, 『이문원노종기』를 다시 읽어 보려고 해요. 이런 관점에서 이 작품을 감상해 볼까요?

**학 생**: \_\_\_\_\_ [A]

**선생님**: 네, 잘 말했습니다.

- ① ‘이문원 동쪽 늙은 나무’가 ‘백여 년’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이 나무를 보살피 주었기 때문입니다.
- ② 글쓴이가 ‘널찍이 드리운 서늘한 그늘’로 인해 ‘홀쩍 벗어나 있는 기분’이 든 것은, ‘이문원 동쪽 늙은 나무’에게서 인간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③ ‘풀과 나무’가 ‘몸을 보전하는 계책’이 있는 것은, ‘조물주’가 서로 다른 생명체가 이익을 주고받도록 해 준 경우에 해당합니다.
- ④ ‘암소’의 ‘뿔이 구부러져 안쪽으로 향’하는 위험을 인간이 ‘톱으로 잘라’서 해결해 주는 것은, ‘가축’이 인간에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⑤ 글쓴이가 ‘이문원 동쪽 늙은 나무’가 ‘저 깊은 산중 인적 끊긴 골짜기’에서 자란 나무보다 번성하게 자랐다고 한 것은, 인간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28~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동림산업은 사무직 남자 직원들에게까지 제복 착용을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준비 위원회를 결성해 전체 사원이 새로운 제복을 착용하도록 결정했으나, 그 결과에 불만을 품은 사무직 남자 직원들이 있었다.

“이미 끝난 일이야. 지금 와서 아무리 떠들어대 봤자 제복은 벌써 우리 몸에 절반쯤이나 입혀져 있어.”

민도식이 나서서 **협박해진 분위기**를 간신히 가라앉혔다.

“준비 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소집한 건 처음부터 요식 행위에 지나지 않았던 거야. 경영자 독단으로 처리하지 않고 직원들의 의사를 물어서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 가지고 결정했다는 인상을 대내외에 풍길 필요가 있었던 거야. 이제 길은 두 가지뿐야. ㉠ **나머지 절반**을 찾아서 마저 몸에 꿰든가, 아니면 기왕 우리 몸에 입혀진 절반을 아예 벗어 버리든가 각자가 알아서 결정할 일이야. 저기 좀 보라고. 저 사람 아까 부터 우릴 비웃고 있어. 제복 얘기 앞으로는 그만하기로 하지.”

생산부 공원 복장을 한 사내가 엇비뚤스런 자세로 이쪽을 돌아다보며 ㉡ **야릇한 웃음**을 입가에 물고 있었다. 그를 보더니 장상태가 화를 벌컥 내면서 큰 소리로 미스 윤을 불렀다.

“이봐, 저기 앉은 저 사람 내가 좀 보잔다고 전해!”

㉢ **눈이 휘둥그레진** 미스 윤이 종종걸음으로 그에게 다가가기 전에 그쪽에서 자진해서 먼저 일어섰다. 그가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장의 목소리가 컸던 것이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여전히 웃음기를 입에 문 얼굴이 장을 정면으로 상대했다.

“당신 뭐야? 뭔데 어제부터 남의 얘길 엿듣고 비웃지, 비웃길?”

“비웃음으로 보셨다면 용서하십쇼. 엿듣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들릴 정도로 선생님들 말소리가 컸습니다. 말씀 내용이 동림산업에 계신 분들 같아서 저도 모르게 관심이 갔나 봅니다.”

“오오라, 그러고 보니 당신도 동림 가족의 일원이 분명하군. 부서가 어디야?”

“생산부 제1 공장입니다. 거기서 잡역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권입니다.”

“이름이 권이다? 그럼 성까지 아주 짝을 채워 보게.”

“성이 권입니다.”

만만한 상대를 만난 장은 권 씨를 노리갯감으로 삼아 화풀이할 작정임을 분명히 하면서 동료들에게 은밀히 눈짓을 보냈다. 함께 놀이에 끼어들라는 뜻일 것이다.

그러나 도식이 보기엔 첫눈에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그는 참을성 좋게 여전히 웃고 있었다. 그것은 생산부 공원들이 본사의 사무직을 대할 때 일반적으로 갖는 비굴한 표정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적대감도 아닌 그것은 일종의 자신감의 표현임이 분명했다. 두툼한

[A] 입술과 커다란 눈이 얼핏 눈에 띄는 특징이었다. 장상태하고 비교해서 둘이 서로 어금어금할 정도로 작은 체구였다. 실제 나이는 장보다 두세 살쯤 위일 것 같은데 적어도 이삼십 년은 더 세상을 살아 냈을 법한 관록 같은 게 엿보이는 얼굴이었고, 그것이 교양이라는 것하고도 연결되어 잡역부라던 자기소개가 아무래도 믿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

“ 짝을 채우기 싫다 이거지? 좋았어. 그런데 자네가 하는 잡역 일하고 무슨 상관인 있어서 우리 얘기에 이틀 동안이나 관심이 갔지?”

“물론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쪽에선 작업 중에 팔이 뭉텅 잘려져 나간 사람이 있고 그 팔 값을 찾아 주려고 투쟁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다른 한쪽에선 몸에 걸치는 옷 때문에 자기 인생을 걸려는 분들도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장상태의 얼굴색이 하얗게 질리는 것 같았다.

(중략)

체육 대회가 열리는 제1 공장까지 가자면 다른 날보다 더 일찍 나서야 되는데도 여전히 망기적거리고만 있는 남편 곁에서 아내는 시종 근심스런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제복 때문에 **총각 사원 하나**가 사표를 던졌다는 소문을 아내는 믿지 않았다. 사표를 제출한 게 아니라 강제로 모가지가 잘린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까짓것 난 필요 없어. 거기 아니면 밥 빌어먹을 데 없는 줄 알아? 세상에 아직도 유니폼 안 입는 회사가 수두룩하단 말야!”

㉣ **거듭되는 재촉**에 이렇게 큰소리로 대거리를 했지만 결국 민도식은 뒤늦게나마 집을 나서고 말았다.

시내를 멀리 벗어나서 교외에 널찍하게 자리 잡은 제1 공장 앞에 당도했을 때는 벌써 개회식이 시작된 뒤였다. 공장 정문 철책 너머로 **검정 곤색 일색**의 운동장을 넘어다보는 순간 민도식은 갑자기 ㉤ **숨이 턱 막혀** 읊을 느꼈다. 새로 맞춘 제복으로 단장한 남녀 전 사원이 각 부서별로 군대처럼 질서 정연하게 도열해 서서 연단에 선 지휘자의 손끝을 우러러보며 사가(社歌)를 제창하기 직전의 예비 운동으로 목청을 가다듬는 헛기침들을 하고 있었다. 이윽고 공장 일대를 한바탕 들었다 놓는 우렁찬 노래가 터지기 시작했다. 노래 부르는 직원들 모두가 작당해서 ㉥ **지각한 사람을 야유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검정 곤색의 제복들이 일치단결해 가지고 사복 차림으로 꿈무늬에 따라붙으려는 유일한 사람을 완강히 거부하는 듯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세상 전체가 온통 제복투성이인 가운데 저 혼자만 외톨이로 떨어져 있는 셈이었다. 자기 한 사람쯤 불참한다 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체육 대회 개회식은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이 민도식을 무척 화나면서도 그지없이 외롭게 만들었다. 정문으로 들어서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뒤돌아서서 나오지도 못한 채 그는 일단 멈춘 자리에 붙박여 버린 듯 언제까지고 움직일 줄을 몰랐다.

- 윤홍길, 『날개 또는 수갑』 -

28. [A]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의 행위를 사실적으로 그려 내어 내적 갈등을 표면화하고 있다.
- ②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여 인물이 겪는 인식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③ 공간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인물이 처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시선을 통해 인물의 특징을 관찰하여 알려 주고 있다.
- ⑤ 서술자가 인물의 경험을 삽화 형식으로 나열하여 사건을 입체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29. ㉠의 의미와 관련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미 끝난 일이야’라는 말로 보아, 남자 직원들 중에 ㉠을 마저 입을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협약해진 분위기’로 보아, ㉠과 관련된 문제로 남자 직원들 사이에 소란스러운 일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③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라는 말로 보아, 권 씨도 남자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을 마저 입을지를 선택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총각 사원 하나’에 대한 아내의 반응으로 보아, 아내는 총각 사원이 ㉠ 때문에 회사를 스스로 그만두었다는 소문을 믿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검정 곤색 일색’으로 보아, 체육 대회에 참석한 전체 사원이 ㉠을 마저 입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30.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는 권 씨가 사무직 직원들의 대화에 관심이 있었음을 나타내는 반응이다.
- ② ㉢는 장상태가 화를 내며 큰 소리로 명령하였기 때문에 미스 윤이 드러낸 반응이다.
- ③ ㉣는 아내가 집을 나서지 않고 있는 남편 때문에 걱정하여 보인 반응이다.
- ④ ㉡는 전체 직원들이 같은 옷을 입고 군대처럼 도열한 모습을 본 민도식에게 나타난 반응이다.
- ⑤ ㉣는 직원들이 사복을 입은 민도식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는 반응이다.

31.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중도적 주인공’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논리를 비판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집단의 논리를 따를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인물이다. ‘중도적 주인공’은 인식 측면에서는 집단의 논리에 숨겨진 문제를 읽어 내는 주체적인 관점을 보인다. 그러나 행동 측면에서는 자신의 인식에 따라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거나, 집단에 동화되지 못한 채 집단 논리의 수용 여부를 두고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인다.

- ① 동료에게 ‘준비 위원회’의 ‘회의’에 담긴 ‘경영자’의 숨은 의도를 파악하여 발언하는 것을 보니, 민도식은 ‘동립산업’이 내세우는 논리에 대해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주체적인 관점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군.
- ② 권 씨를 ‘노리갯감’으로 삼자는 장상태의 ‘눈짓’을 읽었지만 이에 선뜻 동참하지 않은 것을 보니, 민도식은 ‘작업 중’ 사고를 둘러싼 ‘투쟁’과 ‘몸에 걸치는 옷’을 둘러싼 논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군.
- ③ 아내에게 ‘큰소리’로 자신의 생각을 말하면서도 ‘뒤늦게나마 집을 나서’는 것을 보니, 민도식은 ‘동립산업’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회사를 떠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군.
- ④ ‘사복 차림’으로 체육 대회에 가지만 자신을 ‘꿈무늬에 따라 붙으려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보니, 민도식은 집단의 논리를 거부하고 싶지만 집단에 소속되고 싶은 마음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군.
- ⑤ ‘제1 공장’ 정문 앞에서 ‘붙박여 버린 듯’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보니, 민도식은 ‘동립산업’의 정책에 대한 비판을 적극적인 행동으로 옮길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군.



[32~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풍파에 일렁이던 배 어디로 갔단 말인가  
구름이 험하거늘 처음 나왔는가 어찌하여  
허술한 배 두신 분네는 모두 조심하소서

- 정철의 시조 -

(나)

심의산(深意山) 서너 바퀴 감돌아 휘돌아 들어  
오뉴월 한낮에 살얼음 엉긴 위에 된서리 섞어 치고 자취는  
내렸거늘 보았는가 입아 입아  
온 놈이 온 말을 하여도 입이 짐작하소서

- 정철의 시조 -

(다)

아이야 구럭 망태 찾아라 서쪽 산에 날 늦겠다  
밤 지낸 고사리 벌써 아니 자랐으랴  
이 몸이 이 나물 아니면 조석(朝夕) 어이 지내리 <제1수>

아이야 도롱이 샷갓 차려라 동쪽 시내에 비 내린다  
기나긴 낚싯대에 미늘\* 없는 낚시 매어  
저 고기 놀라지 마라 내 흥 겨워하노라 <제2수>

아이야 죽조반(粥早飯) 다오 남쪽 논밭에 일 많구나  
서투른 따비\*는 누구와 마주 잡을꼬  
두어라 성세궁경(聖世躬耕)\*도 역군은(亦君恩)이시니라 <제3수>

아이야 소 먹여 내어라 북쪽 마을에서 새 술 먹자  
잔뜩 취한 얼굴을 달빛에 실어 오니  
어즈버 회황상인(羲皇上人)\*을 오늘 다시 보는가 <제4수>  
- 조준성, 「호아곡」 -

\* 미늘: 고기가 물면 빠지지 않게 만든 낚시 끝의 안쪽에 있는 작은 갈고리.

\* 따비: 풀뿌리를 뽑거나 밭을 가는 데 쓰는 농기구.

\* 성세궁경: 태평한 세월에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지음.

\* 회황상인: 세상일을 잊고 한가하고 태평하게 숨어 사는 사람을 이르는 말.

32.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 화자의 요구를 전달하고 있다.
- ② 대상을 의인화하여 화자와 자연의 유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 ③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미래에 대한 전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물음의 방식을 활용하여 대상에 대한 친밀감을 표현하고 있다.
- ⑤ 풍경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계절의 변화상을 그려 내고 있다.

33. (다)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각 수의 첫 음보를 동일한 시어로 제시하여 시상 전개에 안정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② <제1수>와 <제2수>에서는 생활 도구를 언급하여 화자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 ③ <제1수> 종장과 <제3수> 종장에서 나타나는 화자의 걱정은 각 수의 종장에서 강화되고 있다.
- ④ <제1수> 종장과 <제3수> 초장에서는 간단한 먹을거리를 언급하여 화자의 소박한 생활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제4수> 종장은 첫 음보의 감탄 표현을 활용하여 시상을 집약하고 있다.

34. <보기>를 참고하여 (가)~(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정철과 조준성이 살았던 16세기 후반~17세기 초반에는 정치 참여 과정에서 당파 간의 대립과 투쟁이 극심해지면서 정치적 공격을 받은 문인들이 벼슬에서 파직, 유배되거나 산림에 은거하는 등 정계에서 소외된 상태에 놓이는 경우가 잦았다. 이 과정에서 문인들은 정치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 현실에 대한 비판과 경계, 처세관, 자연에 몰입하려는 태도 등을 작품에 드러내었다.

- ① ‘풍파’가 험난한 정치 현실이고 ‘일렁이던 배’가 시련을 겪은 관료라면, (가)의 초장은 당쟁에 휘말린 사람이 정치적 소외 상태에 놓인 것을 의미하겠군.
- ② ‘구름이 험하거늘’이 정치적 위기의 조짐에 해당하고 ‘허술한 배 두신 분네’가 신진 관료라면, (가)의 종장은 화자가 정치 경험이 충분치 않은 이들에게 정치의 험난함을 알려 주는 것이겠군.
- ③ ‘심의산’이 화자의 심회이고 ‘오뉴월’의 ‘자취’가 화자의 복잡한 심정을 비유한 표현이라면, (나)의 초장과 종장에서는 당쟁의 상황에서 굳은 마음을 견지하려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겠군.
- ④ ‘온 놈이 온 말을 하’는 상황이 비방과 모략이 난무하는 현실이고 ‘입’이 임금이라면, (나)의 종장은 온갖 참소를 임금이 잘 판단해 달라는 것이겠군.
- ⑤ ‘미늘 없는 낚시’가 욕심 없이 사는 삶을 의미한다면, (다)의 <제2수> 종장은 자연과 더불어 지내는 화자의 흥을 드러내는 것이겠군.